

운젠 골프코스

1913년 구라바 도미사부로(1870년-1945년)는 나가사키현과 공동으로 일본 최초의 퍼블릭 코스이자 현존하는 일본에서 2번째로 오래된 운젠 골프링크스를 창설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사키현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토지를 취득해 코스에 최초의 클럽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운젠에서도 독특한 존재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운젠은 20세기 초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 각지에 사는 서양인들의 피서지였습니다. 이 골프장은 서양의 오락활동을 찾아 운젠에 바람을 쐬러 온 그들과 같은 피서객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의 클럽하우스는 1995년에 지어졌으며, 2층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골프장의 역사에 대해 전시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사진, 엔틱 골프채, 트로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 경영으로 바뀐 이 골프장은 지금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일본 및 전세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